

담양군, 농업지원사업 설명회

권역별 주민설명회 통해 농업현장 소통 강화

농작물 작기에 맞춘 적절한 행정PR 호평



소득을 높이는 작지만 강한 농업군' 담양군이 2020년도 농업분야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군은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수북면을 시작으로 담양읍과 고서면에서 이장, 작목별 대표, 농업인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농업분야 주요 보조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 농업분야 예산이 본예산 378억원 기준 764억 9천만 원으로 군 총예산의 20%를 확보한 만큼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과 더불어 농어민공익수당 등과 같은 농업복지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 예술인촌,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

옛 능주북초 리모델링...전시회 관람료 무료



화순군이 지난 27일 능주면 만수리에 있는 옛 능주북초등학교에 건립한 화순 예술인촌이 문을 열었다.

화순 예술인촌은 옛 능주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건립했다. 지상 1층(연면적 674㎡) 8개 동으로 이루어진 예술인촌은 창작실 3곳, 공

동취사실,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체험 활동실을 갖추고 있다.

예술인촌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조성했다. 예술인촌은 지역 유명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실, 작가들의 예술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된

화순=박순철 기자

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농업기술센터, 산림정원, 농어촌공사, 산림조합에서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주요 지원사업 163개 사업에 대한 지침 설명으로 일반 주민들의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통행의 지침 설명에 국한하지 않고 일선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의견 수렴 등 소통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올러 매년 1월에 하던 설명회를 2020년 본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실시해, 농업인이 농작물의 작기에 맞춰 적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농업인의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농업인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여주시, 소제지구 행정소송 2심 승소...택지개발 탄력

광주고등법원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여주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2심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다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3월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여주시는 소제지구의 경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여주시가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여주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5월 제1심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여주시 손을 들어줬다.

여주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했다.

2018년 6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 지금까지 약 50%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소제마을 418,000㎡ 부지에 사업비 1324억 원을 투입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며 "소제지구는 마지막 남은 국가산업단지 배후택지로 접근성과 경치가 좋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곡성군, 민관군경 협업으로 굳건한 통합 방위 태세 점검

곡성군이 2019년도 4분기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26일 개최했다.

곡성군청 소통마루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곡성군의회, 곡성경찰서, 육군 제7391·30대, 곡성교육지원청 등 지역 16개 유관 기관장 및 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현재 지역 안보 현안과 관련해 각 기관 및 단체별 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유근기 군수는 "경찰과 군부대를 비롯해 각 기관별로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이어 "앞으로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등으로 굳건한 비상 대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비롯해 통합방위 훈련(을지연습 및 추무훈련), 군경장병 위문 등이 대표적이다.

고흥군, '민선 7기' 공모사업 113건 · 2196억 '역대 최대'

고흥군은 '민선 7기' 공모사업으로 113건에 총사업비 2,196억 원을 유치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급년 51건에 1,875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유치액은 2009년 공모사업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였던 2014년 885억원보다 990억원

(▲111.9%)이 늘어난 것으로 고흥발전에 청신호가 밝혀졌다.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했다는 것은 향후 수년간의 가용재원을 사전에 확보했다는 의미로,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는 송기근 고흥군수의 공모사업별 전략 수립 지시와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 7기'에 유치한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1,099억원) △어촌뉴딜 300(344억원) △청년 농촌보급자리사업(90억원) 등이 있다.

송 군수는 "유치한 공모사업들이 지역발전을 이끌고 지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행위 안내